

제주지역 경로당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오 윤 정

I. 서론

고령사회 및 노인세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호모 헉드레드(homo-hundred)’라는 용어를 한번쯤 들어봤을 듯하다.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UN이 현재를 ‘호모 헉드레드(homo-hundred)’ 시대로 정의했다.

최근 제주 최고령 할머니(오윤아 할머니)가 2018년 1월10일 향년 120세로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한 기사를 접하였다. 오할머니는 호적상 대한제국 시대였던 1899년에 태어나 3세기를 걸쳐 4대(代)를 이어오며 슬하 3남1녀에 증손주까지 70여명에 달하는 대가족을 꾸렸다. 2014년(116세)에 치러진 6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으로 많은 귀감을 사기도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123명(할머니 118명, 할아버지 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시사제주, 제주 최고령 120세 오윤아 할머니 별세, 2018.1.10. 일자 기사).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기준 전국평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섬에 따라 나라 전체가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섰다. 특히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평균과 가장 가까운 14.1%로 17개 시도 중 앞뒤로 8위를 기록했다. 시·도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지역은 제주(14.1%), 경남(14.7%), 충북(15.7%), 부산(16.0%), 충남(17.0%), 강원(17.9%), 전북(18.8%), 경북(18.8%)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시·도 중 유일하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1.4%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접어들

것으로 나타났다(한라일보, 제주 65세 이상 인구비율 '대한민국 평균', 2017.9.3.일자 기사).

이제 65세 이상=노인이라는 등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젊은 어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로 새로운 노년상 제시를 기대받고 있기도 하는 등 노년에 대한 개념 정의와 노년 관련 정책들이 변화해야 할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베이비부머는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8만6,525명이고, 이는 제주 총 인구수(65만 1,888명)의 13.3%에 달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9만 1,856명, 14.1%)와 맞먹는 규모다. 베이비부머가 노인 세대에 진입하게 되면 도내 고령화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한라일보, [베이비붐 세대를 말하다](1) 프롤로그, 2018년 1월1일자 기사).

제주지역은 2017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지방정부 정책으로 장수수당 지급 등 고령친화적인 지역으로 앞장서 가고 있는 반면, 혁신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발굴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종합하면, 제주지역은 점차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로 접어드는 베이비부머의 증가 등이 나타나는 현재 상황에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책 발굴시에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에서는 노인복지시설로서 가장 일반화된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혁신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로당의 법적 위상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제주지역 경로당 현황을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경로당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경로당의 법적 위상 및 제주지역 경로당 현황

1. 경로당의 법적, 제도적 위상

고령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 가운데 경로당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고, 100세 시대에서 노인들은 은퇴 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과연 무엇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낼 것

인가 하는 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지역 혹은 마을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시간들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며(고승한 외, 2016), 경로당의 활성화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며, 또한 동법 제36조 제1항 2호에 의해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경로당의 설치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인원 20명 이상, 읍면지역의 경우 10명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이용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거실, 휴게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경로당에 대한 행정관리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읍·면·동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서귀포시지회)에 모두 소속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2. 제주지역 경로당 설치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현재 제주지역 경로당은 총 431개소(제주시-287개소, 서귀포시-144개소)가 운영중이며, 46,65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이는 2016년 4월 말 기준 417개소보다 24개소 증가한 수치이다. 제주시(26개 읍·면·동)의 경우, 4개 읍에 100개 경로당이, 3개 면에 29개 경로

〈표 1〉 제주도내 경로당 지역별 분포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431	287	144
읍	163	100	63
면	59	29	30
동	209	158	51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당이, 19개동에 158개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으며, 서귀포시(17개 읍·면·동)의 경우, 3개 읍에 63개 경로당이, 2개 면에 30개 경로당이, 12개동에 51개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다.

제주지역 경로당은 2018년 현재 제주지역 대부분의 마을마다 1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주지역 내 경로당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제주도내 경로당 지역별 분포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한림읍	23	애월읍	34	구좌읍	18	조천읍	25
한경면	21	추자면	6	우도면	2	일도1동	2
일도2동	15	이도1동	3	이도2동	15	삼도1동	5
삼도2동	2	용담1동	2	용담2동	11	건입동	3
화북동	14	삼양동	8	봉개동	5	아라동	18
오라동	7	연동	9	노형동	21	외도동	10
이호동	4	도두동	4			제주시	287
대정읍	31	남원읍	18	성산읍	14	안덕면	18
표선면	12	송산동	2	정방동	1	중앙동	1
천지동	2	효돈동	2	영천동	5	동홍동	12
서홍동	1	대륜동	6	대천동	7	중문동	5
예래동	7					서귀포시	14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제주지역 경로당의 세부 이용인원(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을 살펴보면,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은 서귀포시 서홍동 경로당으로 58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이 가장 적은 경로당은 제주시 신사수 경로당(도두동 소재)으로 12명이 이용(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참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별 경로당 이용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로당 설치 기준에 의하면 동지역의 경우, 20인 이상, 읍면지역의 경우 10명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동은 겨우 이용인원 기준(20명)을 넘거나 이용인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선진사례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근홍·이화영(2011)는 경로당사업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경로당의 기능전환,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 분석, 경로당의 기능적 통합 가능성, 경로당과 다른 시설과의 통합 운영 등을 중심으로 경로당 운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경로당의 문제점으로 1) 열악한 운영자금, 2) 경로당 기능의 변질, 3) 운영책임자의 전문성 부족, 4) 전문적 지원체계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로당사업담당자 면접결과 경로당의 기능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었으며, 그 기능은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보호기능, 건강증진 및 상담장소, 복지공간으로 활용,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곳, 생산적인 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 정보교환 장소,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문적인 경로당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력 및 예산의 중복을 피하면서 설치 장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의 연구에 의하면, 경로당의 문제점으로 1) 법적 기준과 시설·설비의 부족, 2) 프로그램의 부재, 3) 경로당 운영의 영세성, 4)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결여, 5) 배타성과 운영주체의 비전문화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로당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외부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회원모집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여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고 있다.

고승한 외(2016)의 연구에 의하면,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으로 1) 경로당 운영의 행정기관 의존, 2)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성, 3) 경로당 운영이 리더십에 의존, 4) 제주지역과 제주노인 특성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미흡, 5)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 인력 부족, 6) 경로당 운영의 지역적 격차, 7)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발전 로드맵 부재, 8)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미흡, 9) 경로당 운영 예산의 불충분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에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거의 전적으로 행정(제주

특별자치도, 행정시)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일부 경로당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정기적으로 받거나, 혹은 회원(혹은 독지가 등)들로부터 찬조금 등을 받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지역 경로당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유사하고, 경로당의 특성(지역, 규모, 예산, 참여도 등)과 경로당 이용자들의 특성(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적 생활형편, 은퇴 전 직업, 경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선진사례 분석

1) 일본 사례¹⁾

일본에서는 매년 9월 셋째주 월요일이 경로의 날이다. 일본 경로의 날은 ‘오랜 세월을 걸쳐 사회에 힘쓴 노인을 경애하고, 장수를 기원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공휴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일본 아키타시의 복지복합 시설 웨르뷰이즈미²⁾는 사회복지법인 이즈미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고령자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이 한 건물에 있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노인데이서비스 센터와 장애인 복지서비스센터, 3층에는 노인 생활지원하우스가 위치해 있다. 웨르뷰이즈미의 사무장 오야마씨는 “일본에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들이 함께 있는 시설은 많지 않아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했지만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어린이집이 있어 평일에도 활기차며 어린이들에게도 일상적으로 고령자나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웨르뷰이즈미 생활지원하우스에는 60세 이상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개인생활, 금전관리가 가능한 홀로 사는 노인이 입주해 있다. 생활지원하우스는 아키타시의 위탁사업으로 입주하려면 아키타시 장수복지과에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재 생활지원하우스의 대기인원은 240명 정도이다. 주거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거주

1) 본 사례는 한리일보(2017년 10월24일자, [‘장수의 섬’ 제주 고령친화도시시로]9) 일본 고령친화도시 1호 아키타시(하)편 기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 웨르뷰이즈미의 데이서비스센터는 개호보험(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정한 실내 사업소로 이용자 평균 연령은 81.8세이며 모두 30명이다. 운영방식은 오전에 웨르뷰이즈미로 와서 식사, 레크리에이션, 목욕서비스를 받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방 넓이는 약 11.2㎡이며, 방마다 조리실이 있고, 욕실과 코인세탁기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자 중 80% 정도가 7,000엔(한화 약 68,000원, 2018년 1월17일 기준) 정도를 아키타시에 내며 나머지 거주자는 무료로 생활하고 있다. 생활도우미가 생활상담·건강상담을 하지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활협동조합 버스가 웨르뷰이즈미로 오기 때문에 이때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다. 웨르뷰이즈미는 반상회, 동아리 활동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층 어린이집 옆에 위치한 교류플라자는 평소에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찻집이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웨르뷰이즈미의 사무장 오야마씨는 “마을 반상회, 투표소로 장소를 제공하고 아키타 전통축제에도 지역 주민들을 모아 참가하기도 한다”며 “65세 이상 퇴직 후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도예교실을 열어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도 열고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전통문화 계승 행사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웨르뷰이즈미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격리하려는 사고방식을 고치고 이들과 함께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멀라이제이션³⁾ 사회 실현’이 목표“라고 하고 있다.

2) 서울시 사례⁴⁾

서울시는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라는 개념을 꺼내든 것은 2010년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에서다. 이 계획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밝히고 고령친화도시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울시는 2011년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2년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인 ‘서울어르신종합계획’(2013~2015)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듬해 6월에는 국내 첫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가 됐다.

현재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진행한 1기 계획에서 살기편한 환경, 제2인생설계 지원, 활기찬 여가문화, 맞춤형 일자리, 존중과 세대통합, 건강한 노후 등 6대 영역에서 35개 과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인실태 조사와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노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

3)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은 정상화의 의미로, 고령자나 장애자를 격리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그 생각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을 말함(어학사전 및 국어사전 참조)

4) 본 사례는 한라일보(2017년 9월13일자, [연속기획/ '장수의 섬' 제주 고령친화도시로])⁵⁾ 서울시는 지금편 기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는데 중점을 뒀다.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노인 실태조사를 실행했고, 같은 해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 제안을 받았다.

2015년 서울시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2.5%였는데, 노인 세대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모의 인구 규모는 이보다 높은 18.5%였다. 조직 개편 방향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베이비붐 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예비 노인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없이는 고령화의 충격이 더 거셀 거라는 위기감을 반영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실행계획 이행 단계에서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노인복지정책 담당부서의 명칭을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바꾼 뒤 2014년 어르신복지과 내에 베이비부머정책팀을 신설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2015년에는 이 팀을 ‘인생이모작지원과’로 확대했다. 예비노인인 중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갖춘 셈이다.

서울시는 2016년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한데 이어 권역별로 캠퍼스, 자치구별로 센터를 열고 있다. 50+세대(만 50~64세, 베이비부머·신노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모델 발굴, 새로운 50+ 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2020년까지 캠퍼스 6곳, 센터 25곳이 세워질 예정으로, 캠퍼스가 50+세대들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며 활동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맞춤형 교육·상담 창구라면, 센터는 자치구를 기반으로 하는 50+세대의 활동 공간이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50+세대를 고령사회의 문제 요인이 아닌 새로운 기회와 자원으로 주목한다. 이들이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통해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예전과는 다른 노년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0플러스캠퍼스에서는 ‘50+ 인생학교’ 과정을 포함해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으로 나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정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홍보협력실장은 “50플러스를 위한 정책은 노인이 아닌 청년 정책과 유사하다”며 “상담 영역에서부터 이들이 결핍을 느끼는 교육과정을 채워주고, 교육을 받은 뒤에는 협동조합 설립이나 사회적기업 설립, 취업, 소모임·연구모임 운영, 재능봉사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고령친화상점 사이드’를 제작한데 이어 민간 디자인, 컨설팅 업체와 손잡고 고령친화상점 지정, 전문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

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종로구, 은평구, 동작구에 있는 시장 상점이 고령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락희(樂喜)거리’가 어르신을 위한 친화거리라면, 고령친화상점은 모든 세대가 고령친화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IV. 제주지역 경로당 발전방안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제주지역에는 2017년 12월말 기준 431개소(제주시-287개소, 서귀포시-14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비의 영세성, 프로그램의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로당의 법적, 제도적 위상 및 선행연구 검토, 선진사례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 경로당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기능의 재정립

경로당은 현재 노인세대의 사랑방 기능, 친목도모의 장소,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경로당 역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 이근홍·이화영(2011)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경로당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영역은 1)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보호기능, 2) 노인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곳, 3) 복지공간, 4)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장소, 5)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2013년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로당 임원 역량 강화 교육, 전체 경로당 사업계획 검토, 지도 및 민원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험할 수 있는 성과는 미흡하다. 기능 재정립시에는 예비노인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 경로당을 이용할 노인세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시 경로당혁신커뮤니티단

(가칭)을 꾸려서 경로당 기능 재정립을 위한 노인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2. 운영비의 현실화 및 경로당 컨설팅 시범 실시

제주지역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대개 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용은 주로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냉방비, 케이블TV 시청료, 간식비), 경로당 기능보강(신 중축, 장비보강), 경로당 건강장비 수리비,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승한 외, 2016). 제주특별자치도의 경로당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7,023백만원, 2014년 9,374백만원, 2015년 8,725백만원, 2015년 5,123백만원으로 2013년에서 2014년에만 증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경로당이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운영을 위한 난방비, TV시청료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와 함께 경로당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비, 프로젝트 등 기자재 구입비,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사비, 경로당 임원진 교육훈련비 등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전체 431개소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예산 등의 문제가 있으니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 몇 개소를 선정, 운영하여 성과를 보면서 도내 경로당에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

현재 경로당은 지역별로 편차가 없는 유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전문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로당과 경로당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경로당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육성하는 것이 경로당 활성화에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강사양성, 양성평등강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관심있는 도민이 소정의 과정을 거쳐 강사로 육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맞춤형 경로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 강사료를 부담하지 않고 전문교육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은 사회취약계층 또는 베이비부머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일자리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노인-장애인-어린이 복합공간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노인-장애인-아동(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점점 사회가 세대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규모가 크고, 위치적으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하여 복합공간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새로운 시설물을 증축하게 된다면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기업이 손잡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지방공기업(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사업공헌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아이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고민하여, 복합공간을 만든다면 어른세대의 노하우로 어린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가능하고, 어린이가 어릴적부터 장애인, 노인들과 어울리면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배우면서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승한·이소정(2016), 제주지역 경로당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이근홍·이화영(2011), 경로당 운영활성화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경기도 경로당사업 관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54호: 165-192. 한국노인복지학회
- 제주특별자치도(2018) 노인복지과, 경로당 현황 관련 내부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방안: 마을복지문화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4-34.
- 시사제주, 제주 최고령 120세 오윤아 할머니 별세, 2018.1.10.일자 한라일보 기사, 제주 65세 이상 인구비율 '대한민국 평균', 2017년 9월 3일 기사
- 한라일보, [연속기획/ '장수의 섬' 제주, 고령친화도시로](5) 서울시는 지금, 2017년 9월13일 기사
- 한라일보, ['장수의 섬' 제주, 고령친화도시로](9) 일본 고령친화도시 1호 아키타시(하), 2017년 10월 24일 기사
- 한라일보, [베이비붐 세대를 말하다](1)프롤로그, 2018년 1월1일 기사